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부모양육 행동과 부적응 도식의 효과

정 연 옥[†]

승의여대 가족복지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 행동과 부적응 도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양 부모가정 자녀 총179명(남90 여89)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부모양육 행동(온정, 지도감독), 부적응 도식, 내재화(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및 외현화 문제행동(공격성, 비행)을 측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부모양육 행동과 아동의 부적응 도식은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인은 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 입각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부모양육행동(온정, 감독), 부적응 도식, 취약성-스트레스모델

[†] 교신저자: 정연옥, 승의여대 가족복지과, 서울시 중구 예장동 8-3
E-mail: yeonok@sewc.ac.kr

최근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는 10대 아동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2009)이 2008년 건강보험 자료에 근거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05년~2008년) 동안에 스트레스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는 10대 아동은 연평균 22.7%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아동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동 정신건강에 적신호이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심리적 반응 및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의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설명 모델은 취약성-스트레스 모델(diathesis-stress model)이다. 이 모델에서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은 단지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개인의 취약성요인과 결합될 때 심리적 부적응이 발생된다고 가정한다(권석만, 2003; Ingram, & Luxton, 2005). 취약성(diathesis or vulnerability)은 위험요인(risk factor)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양자는 구분되는 개념이다(Ingram, & Luxton, 2005). 취약성 요인은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을 의미하며, 취약성은 장애의 발생과정에 대한 인과적 기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Ingram, & Luxton, 2005). 취약성 요인은 개념적으로 심리적 장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매개요인이라기 보다는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했을 때 장애를 유발하는 과정적 변인이다. 따라서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서 취약성 요인은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다(Monroe, & Simons, 1991). 한편 위험요인은 심리적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기는 하지만, 장애 발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성(gender)변인은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는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서, 우울증과 같은 연구에서 우울증 발병 확률을 높이는 변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인은 우울증 발생과 관련된 심리적 기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치료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관련 증상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뿐 만 아니라 그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요인으로서 연구되어온 변인들은 부모자녀관계의 질, 개인의 성격특성, 자신에 대한 신념,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부적응 도식 등이 있다(Hammen, 1992; 권석만, 2003). 대부분 발달 정신병리 학자들은 부모 자녀관계의 질이 개인의 성격특징이나 정신 병리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제안한다(Perris, Arrindell, & Eisemann, 1994).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대개 부모 자녀 간 애착이나 부모양육 행동으로 측정된다. 애착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며(Marisund, & Wichstrom, 2002),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 또는 내재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ummings, & Cicchetti, 1990; Kobak, Sudler, & Gamble, 1991). 또한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Bowlby, 1982),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Liu, 2006). Manassis, Bradley, Godlberg, Hood, 및 Swinson(1994, 1995)은 부모

와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자녀들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를 경험한다고 제안하였다. 안정적 애착은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Papini, & Roggman, 1992).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또 다른 변인은 부모양육행동이다. 부모양육 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애착과 관련된 연구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Maccoby와 Martin(1983)은 부모의 온정(warmth)과 지도감독(supervision)은 자녀의 성격발달에 있어서 핵심적 양육행동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 행동 중 온정과 지도감독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온정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칭찬을 잘해주고, 께안아주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 하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면 대개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Baumrind, 1967; Holden, 1997).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 행동발생을 억제한다(Cohen, & Wills, 1985; Dubois, Felner, Meares, & Krieret, 1994). 또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증상간의 부정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연옥, 이민규, 2006).

부모양육 행동 중 지도감독(supervision)은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지도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

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방과 후에 누구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지도감독은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알고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Parke & Slaby, 1983). 따라서 부모의 지도감독은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점검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양육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지도감독과 관련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홀한 지도감독은 청소년 자녀의 품행문제, 약물복용, 학업 성취의 저하, 위험한 성적 행동과 관련있다(Patterson, Stouthamer-Loeber, 1984; Crouter, Helms-Erikson, Updegraff, & McHale, 1999). 부모의 지도감독과 지지적 태도는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이며, 부모가 지지적이고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잘 하면, 자녀의 폭력적 행동은 감소된다(Brendgen, Vitaro, Tremblay, Lavoie, 2001). 이와 함께,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 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의 감소와 관련있다(고정자, 2005; Fletcher, Darling, & Steinberg, 1995). 감독은 청소년기 자녀의 비행행동과도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에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비행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aird, et al., 2003). 이에 부모의 지도감독 양육행동을 취약성요인중의 하나로 상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개인의 취약성 요인으로 상정한 또 하나의 변인은 부적응 도식이다. 문제 행동 또는 정신병리의 발달에 있어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Beck은 우울증과 같

은 정신 병리의 발달을 설명할 때, 부정적 인지삼체와 같은 인지도식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설명하면서, 부적응 인지 도식을 개인의 정신병리 발생의 취약성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도식이론에 따르면(Young, 1994), 초기 부적응 도식이 정신병리 및 문제행동을 초래하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전된 부적응 인지양상은 전생애 걸쳐서 정교화되어 그것이 정신건강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Beckley, 2002; Young, Klosko, & Weishaar, 2003). Cooper, Rose, 및 Turner(2005)은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 간의 부적응 도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섭식장애 집단과 비섭식장애 집단 간의 부적응 도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아동기 부적응 도식은 심리적 장애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아동기 부적응 도식과 특정 정신병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부적응 도식과 특정 심리적 장애 유형간의 관계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Beckley, 2002). 이에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부적응 도식을 취약성 요인으로 상정하여, 이것이 스트레스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 입각하여, 상정된 취약성 요인인 부모 양육행동과 부적응 인지도식이 스트레스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상수준의 문제 행동을 경험하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 내재화, 고 외현화, 그리고 공존집단을 선정하여 주요 변인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을 경험하는 아동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적 개입하는데 있어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네 군데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질문지를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만 12세에 해당하는 남자 90명, 여자 89명으로 총 179명이었다. 전체 아동의 부모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평균연령은 43.51세, 표준편차는 3.91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평균연령은 40.53세, 표준편차는 3.50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부모 연령간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의 형태가 아동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참여자는 현재 양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모의 이혼, 재혼, 사별 및 별거를 경험한 가정의 자녀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측정 도구

스트레스

아동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척도(배주미, 2000)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질병관련 스트레스”, “생활 및 관계의 변화”, “가족

의 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불화.”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하였다. 이 척도의 점수 범위는 0에서부터 18점이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68이었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1997)를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철수, 신체증상, 우울 및 불안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 비행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증상이 심한 것을 나타낸다. 원 척도의 내적 합치도의 범위는 .63에서 .85에 해당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철수 .76, 신체증상 .78, 우울/불안 .89, 비행 .53, 및 공격성 .81이었다.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온정 및 감독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부모양육 행동 질문지(허묘연, 2000)중에서 온정과 지도감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모양육 행동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각각에 대한 점수가 산출

된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 및 지도감독의 양육행동을 모두 합산하여 총점을 종속측정치로 사용했다. 원 척도의 내적 합치도의 범위는 .68에서 .89에 해당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의 범위는 .84에서 .93에 해당되었다.

부적응도식

Stallard와 Rayner(2005)가 제작한 아동용 도식 질문지(Schema Questionnaire of Children)를 사용하여 참가자의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Young(1990)이 제안한 15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척도는 11세부터 16세 아동까지 실시가 가능하고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대체로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에 응답해야 했고,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두 명의 임상심리전문가가 한국말로 번안한 다음, 번안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수정하였다. 그런 다음 영어와 국어를 잘 구사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에게 의뢰하여 국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원 문항과 번역된 문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앞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식이 부적응적임을 의미한다. 아동용 도식 질문지와 Young의 도식 질문지-단축형(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간의 상관은 .78로 유의미하였다.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2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에 해당되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했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12세 아동 179명의 자료를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수준, 내재화(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및 외현화(비행, 공격성) 문제행동, 부모양육행동(온정, 감독), 부적응 도식을 변량 분석하였다. 둘째, 보다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 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개의 집단을 선정하였다. 오경자 등(1997)은 K-YSR 매뉴얼에서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임상범주를 판단하고자 할 때 60T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양친가정 출신의 정상집단이므로, 60T를 기준으로 임상집단을 선정하였다. 즉, 내재화 점수만 60T 이상인 경우에 고 내재화집단으로, 외현화 점수만 60T 이상인 경우에 고 외현화집단으로, 내재화와 외현화 점수 모두가 60T 이상인 경우를 공존집단으로 선정하여, 각 집단의 스트레스 수준, 부모양육행동, 부적응 도식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상정된 취약성요인인 부모양육행동과 부적응도식의 스트레스와 부적응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여,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 행동 간의 부모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스트레스와 부모양육행동 및 부적응 도식 변인을 중심화(centering)하여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였다; (개인별 스트레스 점수-스트레스 점수의 평균) x (개인별 부모양육행동 점수 - 부모양육행동의 평균), (개인별 스트레스 점수 - 스트레스 점

수의 평균) x (개인별 부적응 도식 점수 - 부적응 도식 점수의 평균).

결 과

본 연구에서 12세 아동 179명의 스트레스, 내재화(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외현화 문제행동(비행, 공격성), 부모양육행동(온정, 감독), 및 부적응 도식을 성별에 따라 변량 분석하였고, 성별 변인간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대부분 주요 변인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유의미한 집단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증상 중의 하나인 신체증상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M=2.97, SD=3.16)이 남학생(M=2.13, SD=2.31)보다 높은 신체증상을 경험함을 나타낸다.

임상범주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60T이상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아동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참가자 179명 중 임상범주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참가자는 27명이었고, 임상범주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참가자는 27명으로, 각각 전체아동의 15.1%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위에서 언급한 절차대로 세 개 집단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고 내재화 집단은 12명으로 전체의 6.7%에 해당하였고, 고 외현화 집단은 12명으로 전체의 6.7%에 해당하였으며, 공존집단은 15명으로 전체의 8.4%에 해당

표 1. 초등학교 남·녀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F 값

	남학생 (n=90)		여학생 (n=89)		전체 (n=179)		F	p
	M	SD	M	SD	M	SD		
스트레스	3.36	2.68	3.72	2.75	3.54	2.72	0.80	0.37
내재화문제	10.79	8.89	13.18	10.54	11.98	9.79	2.69	0.10
위축	3.09	2.68	3.51	2.97	3.30	2.83	0.97	0.33
신체증상	2.13	2.31	2.97	3.16	2.55	2.79	4.05	0.05*
우울/불안	5.83	5.71	7.16	6.43	6.49	6.10	2.12	0.15
외현화문제	10.36	6.40	9.82	5.99	10.09	6.19	0.33	0.56
비행	2.02	1.64	1.90	1.76	1.96	1.70	0.24	0.63
공격성	8.33	5.18	7.92	4.81	8.13	4.99	0.30	0.58
부모양육 합	66.74	10.41	66.53	10.76	66.64	10.56	0.02	0.89
부온정	20.60	3.87	20.28	4.23	20.44	4.04	0.28	0.60
모온정	21.03	3.61	20.37	4.15	20.70	3.89	1.30	0.26
부지도감독	11.61	3.45	12.03	2.89	11.82	3.18	0.79	0.38
모지도감독	13.50	2.51	13.84	2.55	13.67	2.53	0.82	0.37
부적응도식	18.34	9.02	18.71	9.85	18.53	9.41	0.07	0.80

* $p < .05$

되었다. 임상집단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의 T점수를 살펴보면, 고 내재화집단의 내재화 점수의 평균은 64.25(SD=4.37)였고, 외현화 점수의 평균은 52.50(SD=4.17)이었다. 고 외현화집단의 내재화 점수의 평균은 52.50(SD=4.17) 이었고, 외현화 점수의 평균은 63.50(SD=3.58) 이었다. 공존집단의 내재화 점수의 평균은 69.60(SD=5.91), 외현화 점수의 평균은 64.87 (SD=3.98)이었다. 임상집단에 따른 내재화 T점수와 외현화 T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내재화 T점수: $F(2, 36)=39.16$, $p < .001$; 외현화 T점수: $F(2, 36)=37.75$, $p < .001$).

임상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개 집단에 따라 스트레스수준,

부모양육행동(온정, 지도감독), 부적응 도식의 차이를 변량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임상집단에 따라 종속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부모양육행동의 합, 부 온정, 및 부적응 도식에서 임을 알 수 있다. 임상집단에 따라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에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성요인으로 상정된 부모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의 수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동시에 경험하는 공존집단이 가장 소홀한 양육을 경험하며(공존집단: $M=54.13$, 고 내재화:

표 2. 임상집단별 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온정, 감독), 부적응도식의 평균, 표준편차 및 F 값

	임상집단	M	SD	F	p
스트레스	고내재화(n=12)	6.83	2.33	1.00	0.38
	고외현화(n=12)	5.17	2.44		
	공존(n=15)	6.47	3.87		
부모양육 합	고내재화(n=12)	60.42 ^{ab}	8.22	5.79	0.01*
	고외현화(n=12)	66.75 ^a	7.19		
	공존(n=15)	54.13 ^b	11.96		
부 온정	고내재화(n=12)	18.25 ^{ab}	4.18	3.85	0.03*
	고외현화(n=12)	21.25 ^a	2.56		
	공존(n=15)	16.53 ^b	5.57		
모 온정	고내재화(n=12)	19.08	4.66	2.33	0.11
	고외현화(n=12)	20.25	3.02		
	공존(n=15)	16.67	5.11		
부 지도감독	고내재화(n=12)	9.75	3.39	2.26	0.12
	고외현화(n=12)	12.00	1.86		
	공존(n=15)	9.53	3.87		
모 지도감독	고내재화(n=12)	13.33	2.46	2.14	0.13
	고외현화(n=12)	13.25	2.05		
	공존(n=15)	11.40	3.44		
부적응도식	고내재화(n=12)	27.00 ^a	5.59	13.50	0.00 ^{***}
	고외현화(n=12)	20.83 ^b	5.22		
	공존(n=15)	34.13 ^c	8.22		

* $p < .05$, ** $p < .01$, *** $p < .001$

^{ab,c}첨자가 다른 것은 Scheffe test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함을 나타냄.

M=60.42, 고 외현화: M=66.75, $F(2, 36)=5.79$, $p < .05$), 특히 아버지에 대해 비온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존:M=16.53, 고 내재화: M=18.25, 고 외현화: M=21.25, $F(2, 36)=3.85$, $p < .05$). Sheffe 사후검증 결과 공존집단과 고 내재화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했

으나, 공존집단과 고 외현화집단, 그리고 고 내재화 집단과 고 외현화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적응 도식의 경우, 공존집단이 다른 두 임상집단에 비해서 가장 부적응 도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존: M=34.13, 고내재화:

M=27.00, 고외현화: M=20.83, $F(2, 36)=13.50$, $p<.001$). Sheffe 사후검증 결과, 공존집단, 고 내재화 집단, 고 외현화 집단 순으로 부적응 도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집단에 따른 부적응 도식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문항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총 15문항 중 임상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8문항이었고, 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에겐 나쁜 일들이 생긴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거나 신경 써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낫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임상집단에 따른 부적응 도식의 차이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12세 아동 179명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부모양육행동, 부적응 도식간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스트레스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부적응 도식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스트레스와 부모양육 행동은 서로 부적응으로 상관됨을 알 수 있다.

표 3. 스트레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부모양육행동의 합, 부적응 도식간의 상관

	1	2	3	4	5
1. 스트레스	-				
2. 내재화문제행동	.66**	-			
3. 외현화문제행동	.52**	.64**	-		
4. 부모양육 합	-.44**	-.50**	-.34**	-	
5. 부적응도식	.54**	.75**	.52**	-.42**	-.40**
M	3.54	11.98	10.09	66.64	18.53
SD	2.72	9.79	6.19	10.56	9.41

* $p<.05$, ** $p<.01$, *** $p<.001$

표 4.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B	β	R ²	ΔR^2	B	β	R ²	ΔR^2
1단계 스트레스(S)	2.40	.66	.44	.44***	1.18	.52	.26	.27***
2단계 부모양육 합	-.13	-.14	.67	.23***	-.04	-.07	.36	.09***
부적응도식	.54	.52			.21	.33		
3단계 S x 부모양육합	.31	.04	.69	.02*	.27	.06	.36	.00
S x 부적응도식	1.24	.16			.15	.03		

* $p<.05$, ** $p<.01$, *** $p<.001$

부모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부적응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각기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에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내재화 문제행동 총 변량의 44%를 유의미하게 설명함을 알 수 있다, $F(1, 177)=138.63, p<.001$. 2단계에 투입된 부모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은 내재화 문제행동 총 변량의 23%를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F(2, 176)=62.14, p<.001$. 3단계에 투입된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및 스트레스와 부적응 도식의 상호작용 항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약 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175)=4.91, p<.05$. 한편, 외현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에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외현화 문제행동 총 변량의 27%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1, 177)=64.89, p<.001$. 2단계에 투입된 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은 외현화 문제행동 총 변량의 9%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76)=12.09, p<.001$. 그러나 3단계에 투입된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및 스트레스와 부적응 도식의 상호작용 항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내재화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Aiken과 West (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즉, 부모양육행동의 고(평균에 1표준편차 더한 점수), 저(평균에서 1표준편차 뺀 점수) 수준과 부적응 도식의 고(평균에 1표준편차 더한 점수), 저(평균에서 1표준편차 뺀 점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스트레스와 내재화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은 스트레스와 부모양육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때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한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지각한 사람들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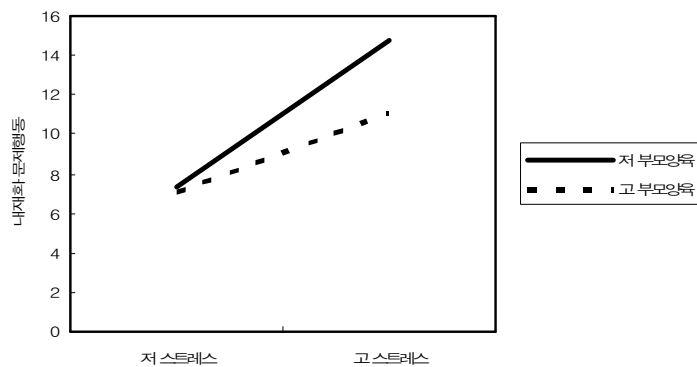


그림 1. 스트레스와 내재화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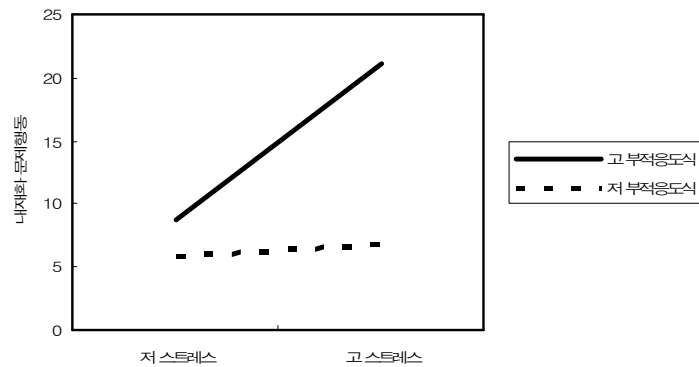


그림 2. 스트레스와 내재화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부적응도식의 상호작용효과

적으로 지각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 경험의 증가가 크지 않았다. 즉,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들은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내재화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는 스트레스와 부적응도식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때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부적응 도식이 많은 아동과 부적응도식이 적은 아동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부적응 도식이 많은 아동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적응 도식이 적은 아동들은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 경험의 증가가 크지 않았다. 즉, 부적응도식이 많은 아동들은 부적응도식이 적은 아동에 비

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내재화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의 관점에서 12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스트레스와 가정된 취약성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상호작용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임상수준의 고 내재화, 고 외현화 및 공존증상을 경험하는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의를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성 변인으로 상정된 부모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은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세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은 취약성-스트레스 모델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대체로

아동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 보다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사랑 받고 적당한 지도감독을 받아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지각한 아동과 그렇지 않다고 지각한 아동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아동이 부적응 도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에서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에 대한 부적응 도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동은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내재화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적응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Cobb, 1976; Cohen & Wills, 1985). 또한 이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내재화 증상을 경험하는 아동과 그 부모를 위한 치료적 개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내재화 문제행동을 지닌 아동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보다 온정적으로 대하는 방법과 자녀의 행동을 적절히 훈육하고 감독하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동에게는 그들의 부적응 도식을 수정할 수 있는 인지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둘째, 취약성 변인으로 상정된 부모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은 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비행, 공격성)은 취약성-스트레스 모델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자세히 보면, 부모양육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

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했으나(표 4 참조),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감독 및 지지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비행 또는 공격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Brendgen et al., 2001; Fletcher et al., 2004; 고정자, 2005)과는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의 적절한 감독행동은 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한다는 연구결과(김정현, 2008)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현(2008)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양육행동과 부적응도식은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에 있어 의미있는 취약성 요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은 부모의 양육방법이나 부모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병리수준보다는 아동 개인의 까다로운 기질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osta, Weems, Pellen, & Dalton, 2006; Patterson, Reid, & Dishion, 1992). 사실상, 본 연구에서 고 외현화 집단은 다른 임상 집단에 비해서 비교적 평균수준의 양호한 부모양육행동(고 외현화 집단 평균 66.75, 전체 평균 66.74)과 부 온정(고 외현화 평균 21.25, 전체 평균 20.60)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부모 양육행동보다는 아동의 기질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는 취약성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문제행동 유형별 취약성 요인을 상정하여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임상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아동의 심리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임상수준의 고 내재화, 고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아동은 전체 179명중 각각 12명(6.7%), 12명(6.7%)에 해당하였고, 고 내재화와 고 외현화 문제행동을 둘 다 경험하는 공존집단은 15명(8.4%)에 해당되었다. 이런 아동을 모두 합치면 총 39명으로 전체 아동의 약 22%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정상적인 양친 가정 자녀로 이혼, 별거, 사별과 같은 가족 형태의 자녀들은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 179명 중 약 22%의 아동이 임상수준의 문제행동을 경험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2009)이 제시한 자료처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와 수렴된다. 최근 우리사회가 학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부모교육이 필요하겠다.

임상집단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결과를 보다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 내재화, 고 외현화, 공존의 세 개 집단은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성 요인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공존집단은 내재화 및 외현화 증상만 경험하는 집단에 비해서 부적응 도식이 더 많았고, 부모양육태도와 부모 온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선행연구들(Breton, Tousignant, Bergeron, & Berthiaume, 2002; Esposito and Clum, 2003; Hills, Cox, McWilliams, & Sareen, 2005; Verona,

Sachs-Ericsson, & Joiner, 2004)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공존하는 경우 자살과 같은 병리의 위험이 높다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특히 공존 집단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한편 고 외현화 집단은 다른 임상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적응 도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현화 장애 집단은 내재화 장애 집단에 비해서 인지적 왜곡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Epkins, 1996)와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건강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적 개입을 할 때 임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2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증상을 측정하였고, 부모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증상은 12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사춘기 이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 수준, 부모 양육행동, 및 스트레스를 자기 보고형태로 측정하였다. 물론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행동이 부모가 응답하는 것 보다 주관적으로 더 정확한 아동의 지각을 반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동의 보고 뿐 만 아니라, 부모의 및 교사의 보고와 같이 보다 다차원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과 양육행동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다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 이 점을 감안하여 측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임상수준의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세 개의 임상집단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양친 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혼, 재혼, 별거, 및 사별가정의 자녀들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집단의 특징은 비교적 가정 형태가 통제되어 수행된 연구로부터 도출된 것이긴 하지만, 샘플사이즈가 작은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많은 수의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인의 취약성 요인으로 부모 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 두 가지 변인만을 상정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문제 행동 유형별로 보다 다양한 취약성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50대 여성이 최고 (보도일자: 2009. 07. 30).
- 김정현 (2008).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13(4), 161-183.
- 권석만 (2003).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 박현선, 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 자아 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1997).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중앙정성출판사.
- 정연옥, 이민규 (2006). 이혼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완충의 조절효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유기공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89-708.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문.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d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eckley, K. (2002). Factor structure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non-clinical adolescent sam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uthampton University.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rendgen, M., Vitaro, F., Tremblay, R. E., & Lavoie, F. (2001).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Predictions to physical violence in different contexts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care giv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4),

- 293-304.
- Breton, J. J., Tousignant, M., Bergeron, L., & Berthiaume, C. (2002). Informant-specific correlates of suicidal behavior in a community survey of 12- to 14-year-old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 723-730.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sta, N. M., Weems, C. F., Pellen, K., & Dalton, R. (2006). Parenting stress and childhood psychopathology: An examination of specificity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8*(2), 113-122.
- Cooper, M. J., Rose, K. S., & Turner, H. T. (2005). Core belief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eating disorder symptom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8*, 60-64.
- Crouter, A. C., Helms-Erikson, H., Updegraff, K., & McHale, S. M. (1999). Conditions underlying parents' knowledge about children's daily lives in Middle Childhood: Between- and within-family comparisons. *Child Development, 70*(1), 246-259.
- Cummings, E. M., & Cicchetti, D. (1990). *Toward a transactional model of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M. T. Greenberg, D. Cicchetti and E. M. Cumming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bois, D. D., Felner, R. D., Meares, H., & Krier, M.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511-522.
- Epkins, C. C. (1996). Cognitive specificity and affective confounding in social anxiety and dysphoria in childre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8*, 83-101.
- Esposito, C. L., & Clum, G. A. (2003).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diagnostic and psychosocial factor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386-395.
- Fletcher, A. C., Darling, N. E., & Steinberg, L. (1995). The company they keep: Relation of adolescents' adjustment and behavior to their friends' perceptions of authoritative parenting in the social net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31*(2), 300-310.
- Hammen, C. (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Hills, A. L., Cox, B. J., McWilliams, L. A., & Sareen, J. (2005). Suicide attempts and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Comprehensive Psychiatry, 44*(2), 113-122.

- 46, 334-339.
- Holden, G. W. (1997). *Parents and the dynamics of child rearing*. Boulder, CO: Westview.
- Ingram, R. E., & Luxton, D. D. (2005). Vulnerability-stress models. In B. Hankin & J. R. Z. Abela (Eds.).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A vulnerability-stress perspective*. New York: Sage.
- Kobak, R., Sudler, N., & Gamble, W. (1991).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athways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61-474.
-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2003). Parents' monitoring relevant knowledge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Evidence of correlated developmental changes and reciproc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74(3), 752-768.
- Liu, Y. L. (2006). Paternal/maternal attachment, peer support, social expectations of peer inter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dolescence*, 41(164), 705-722.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New York: Wiley.
- Manassis, K., Bradley, S., Goldberg, S., Hood, J., & Swinson, L. (1994). Attachment in mothers with anxiety disorder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 1106-1113.
- Manassis, K., Bradley, S., Goldberg, S., Hood, J., & Swinson, L. (1995). Behavioural inhibition, attachment and anxiety in children of mothers with anxiety disorder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0, 87-92.
- Marisund, A., & Wichstrom, L. (2002). Insecure attachment as a risk factor for future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1(12), 1478-1485.
- Monroe, S. M., & Simons, A. D. (1991). Diathesis-stress theories in the context of life stress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depressive disorders. *Psychological Bulletin*, 110(3), 406-425.
- Papini, D.,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4), 420-440.
- Patterson, G. R., Reid, J. E.,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Patterson, G. R.,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299-307.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E. M. Hetherington (Ed.),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547-642). New York: Wiley.
- Perris, C., Arrindell, W. A., & Eisemann, M. (1994).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England: John Wiley & Sons.
- Stallard, P., & Rayner, H.(2005). The development

-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a Schema Questionnaire for Children (SQC).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3, 217-224.
- Verona, E., Sachs-Ericsson, N., & Joiner, T. E. (2004). Suicide attempts associated with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in an epidemiological samp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1, 444-451.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 투 고 일 : 2010. 02. 12.
2 차접수일 : 2010. 06. 06.
게재확정일 : 2010. 06. 21.

Stressful Life Ev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Moderation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Maladjustment Schema

Yeonok Chung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oong Eui Women's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oderation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maladjustment schema o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maladjust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9 children aged 12 years (90 boys and 89 girls). They were assessed by self-report on parental behaviors (warmth, supervision),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stressful life events and maladjustment schema.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roups on clinical level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ree groups with high internalizing and high externalizing, and co-morbidity groups were compar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moderation effects of parental behaviors and maladjustment schema o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maladjustment.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the vulnerability-stress model.

Key words :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parenting behaviors(warmth, supervision), maladjustment schema.*

부록. 임상집단에 따른 부적응 도식

부적응 도식	문항내용	임상집단	M	SD	F	p
엄격한 기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다 더 잘해야 한다.	고 내재화	2.58	1.08	0.21	0.82
		고 외현화	2.42	1.08		
		공존	2.33	.90		
사회적 고립 고립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	고 내재화	1.83 ^a	1.11	10.96	0.00 ^{***}
		고 외현화	0.75 ^b	0.87		
		공존	2.60 ^a	1.06		
불신/학대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한다.	고 내재화	1.58 ^{ab}	0.90	7.15	0.00 ^{***}
		고 외현화	0.83 ^b	1.03		
		공존	2.33 ^a	1.11		
유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고 내재화	1.50 ^{ab}	1.09	6.24	0.00 ^{***}
		고 외현화	0.67 ^a	0.89		
		공존	2.13 ^b	1.19		
의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고 내재화	2.17	1.19	2.05	0.14
		고 외현화	1.58	0.90		
		공존	2.47	1.25		
위협에 대한 취약성	나에겐 나쁜 일들이 생긴다.	고 내재화	1.83 ^a	0.72	13.91	0.00 ^{***}
		고 외현화	1.42 ^b	1.16		
		공존	3.20 ^c	0.86		
정서적 결핍	아무도 나를 사랑하거나 신경 써주지 않는다.	고 내재화	1.00 ^a	1.13	7.06	0.00 ^{***}
		고 외현화	0.33 ^a	0.65		
		공존	2.00 ^b	1.46		
복종	나의 욕구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나 생각이 더 중요하다.	고 내재화	1.42	1.00	1.04	0.36
		고 외현화	1.58	0.90		
		공존	1.93	0.96		
결함/수치심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낫다.	고 내재화	1.83 ^a	1.19	4.86	0.01 [*]
		고 외현화	1.33 ^a	0.65		
		공존	2.67 ^b	1.35		
특권의식 /응대성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다.	고 내재화	2.17 ^a	1.11	3.59	0.04 [*]
		고 외현화	2.75 ^a	0.97		
		공존	1.67 ^b	1.05		
자기-희생	만일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못마땅해 할 것이다.	고 내재화	2.50	1.09	2.62	0.09
		고 외현화	1.67	1.137		
		공존	2.53	0.74		
정서적 억제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고 내재화	2.00	1.13	0.39	0.68
		고 외현화	2.00	1.21		
		공존	2.33	1.11		
융합/미발달 된 자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의 부모님이 관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고 내재화	2.58	1.00	1.38	0.26
		고 외현화	2.08	1.00		
		공존	1.93	1.10		
불충분한 자기통제	나는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고 내재화	1.25	0.97	1.53	0.23
		고 외현화	1.17	1.03		
		공존	1.87	1.36		
실패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고 내재화	0.75 ^a	1.29	11.13	0.00 ^{***}
		고 외현화	0.25 ^a	0.45		
		공존	2.13 ^b	1.25		

* p<.05, **p<.01, ***p<.001

^{abc}첨자가 다른 것은 Scheffe test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함을 나타냄.